

# 들로네(S. Delauunay)의 예술이 표현된 의상·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정혜정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 Study on Fashion and Textile Design expressed in S. Delauunay's Art

Hye - Jung Chung  
Dept. of Fashion Design, Seo Kyeong University  
(2003. 9. 1. 접수)

###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geometric aspect of Sonia Delaunay's works on the basis of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Geometric pattern is one of the distinct features of early 20th century avant-garde works. The significance of its pattern and colour comes from the fact that it has not only influenced the contemporary fine art but also offered the basic principle of modern costume design. In 1925 she was designing clothes which could be worn today without appearing old-fashioned. She foresaw the future trends in fashion and interior decoration. One might claim she belongs to the avant-garde even today and no less astonishing a phenomenon than she was in 1925.

Sonia Delaunay's art was one of the first expressions of abstract painting and her "simultaneous contrasts" are among the earliest example of the aesthetic. In Delaunay's geometric abstraction it is found that the technique of "simultaneous contrasts" is exploited almost without exception. Colour as well as Collage was the favourite technique Delaunay used in creating a distinct simultaneity. Many "inobjective" paintings as she herself called unite the rigour of simple geometric forms with an inner life and poetry which emanate from the richness of the colour, the musicality of the rhythm, the vibrant breadth of the execution.

**Key Words:** geometric(기하학적 도형), avant-garde(전위적인), contemporary fine art(현대 순수미술), simultaneous contrast(동시대비),

## I. 서론

20세기의 시작은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진보로서 특징 지워졌다. 의학은 놀랄게 진보했으며 일상생활은 전기불과 자동화에 의해 바뀌었고 비행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사람들은 진보에 대한 끝없는 믿음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익숙해져 있던 것과 다른 형태의 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즉, 속도가 빨라지는 자동차 역시 그 형태는 마치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은 형태였다. 1911년에서야 첫 번째로 'Hispano-suiza'라고 불리는 기능적 스포츠카가 스페인 왕인 알포스 8세를 위해 디자인 되었다. 그것을 'Amedee Ozen fant'라는 화가에 의해 고안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이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색상과 형태를 하찮게 여길 때 이것들이 새로운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안 것은 화가와 시인이었다. 1870년경에 인상주의자들은 사진이 그림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화풍이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데에 반발하여 1905년에 'd'Aitomne'라는 살롱에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다.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과격한 터치로 그렸으며 사실적인 인상파의 빛에 의한 묘사에 있어서의 명암의 재현을 피했고, 단순화 했으며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부정, 본능적인 주관에 의한 재출발을 시도했다. 이로서 근대회화는 자연주의적인 묘사에서 떠나 일대 전환함으로써 야수라는 의미의 'Fauvers'라는 별명이 지어졌다.

여성의 의상도 매 계절마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동일한 상식 내였으며 관습의 속박에 가장 크게 지배된 것이었다. 여성의 코르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겨우 1타 대전 이후였다.

들로네는 20세기 전반부에 들어와 현대 사회의 스피드와 기계화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보이는 미술의 개념을 탐구했으며, 미술에서 기본이 되는 색상의 균원과 부조화의 조화의 역동적 상호작용

을 통해 현대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가능토록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예술 분야들이 직접적으로 직물 디자인, 의상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선구적인 예술가들의 업적에 의해 의상디자인을 틀에 박힌 전통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작가 자신의 독특하고 고귀한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는 순수 예술의 한 영역으로 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추상파의 선구자였던 들로네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들로네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길리엄 에 폴리에르(Guillaume Apollinaire)와 볼레스 선드라(Blaise Cendrars)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상이 전통적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발표했고, 재킷을 기본의 진보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의도는 그녀의 남편인 로버트 들로네(Robert Delaunay)와 함께 한 연구에 의한 것 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회화세계를 바탕으로 주목한 만한 직물과 의상디자인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sup>1)</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적 흐름 속에서 순수예술을 삶의 예술로 새로움을 보여주는 들로네의 회화세계와 그것을 통한 얻어진 예술적 사고를 의상과 직물 디자인에 직접 도입시키는 과정에 나타난 예술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시대적 배경과 들로네의 예술세계

20세기 초 러시아는 1905년과 1917년의 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형식의 탐구를 위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회내의 정치적 전위(Political avant-grade)와 예술적 전위(artistic avant-grade)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였다<sup>2)</sup>.

1) 정혜정 (2000). 들로네의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리듬과 색채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0(6), p.48.

2) Arvon, H. 오병남 역 (1990). 「Marxist Aesthetics」. 서광사, p.83.

20세기 초 유럽전역에 걸쳐 분출되고 확산된 창조적 에너지는 제1세대 모더니즘 미술운동인 아방가르드(avant-grade)예술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철저하고 의도된 과거와의 단절'로 정의되는 현대미술의 전위정신은 미술사에 혁명적인 진보를 가져왔다<sup>3)</sup>.

러시아의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 이전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졌고 혁명 이념은 이러한 전위 정신을 바탕으로 구조주의를 이루할 수 있었다. 또한 서방과의 빈번한 교류로 야수파, 입체파, 미래주의 등 새로운 현대 미술사조에 쉽게 접할 수 있었다<sup>4)</sup>.

들로네(S. Delaunay)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방가르드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서구 예술의 새로운 혁명가로 널리 알려졌다. 세잔느(P. Cezanne), 고갱(P. Gauguin)과 같은 19세기 말엽의 거장들도 이미 전통과 단절된 새로운 회화예술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1900년대 유럽의 주변부로부터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젊은이들이 파리를 공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들로네도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새로운 논리로 무장하여 기성세대의 이론에 반박을 가하였으며 추상예술의 선구자로서 동참하게 되었다<sup>5)</sup>.

러시아 예술가였던 들로네는 1885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공장노동자의 딸이었던 들로네는 부유한 유태인 가정에 입양되었고, 어린 시절 성 페터스부르그에서 회화공부를 하였고, 1908년 파리로 이주해 오면서 팔레트 아카데미(l'Academie de la Palette)에서 수학하였다. 이곳에서 당시 가장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만나게 되었다<sup>6)</sup>.

1910년 입체파 화가 로버트 들로네(Robert Delaunay)와 결혼하였다. 그 무렵에 그린

"Tehouik의 초상(1906)"이나 "젊은 Finnish여인(1907)" 등의 작품에서 보면 그녀가 당시에는 회화에 나타난 러시아 민속예술과 후기 인상주의(Post-Impressionisme) 그리고 초기 마티스(H. Matisse)화풍에 심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들로네는 후기 인상파 화가인 고갱(P. Gauguin)과 고흐(V. Gogh)의 영향을 받아 특히 윤곽선에 집착하고 있으며, 순수한 색채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sup>7)</sup>.

로버트도 그들 부부가 만나기 전에는 후기 인상파인 세잔느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모더니티가 현대 생활의 조화나부조화를 색채의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sup>8)</sup>.

들로네에 의하면 추상파(Abstraction) 사조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며, 단계적인 변화를 거친 것도 아니다. 초기에는 마티스나 블라맹크(Mauriced de Vlaminek), 뒤피(R. Dufy)와 같이 야수파 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9)</sup>.

들로네의 색채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빛나는 색채의 조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색채 언어를 구사하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1910년에서 1914년에 걸쳐 색채를 이용한 단순한 회화작품뿐만 아니라 심상과 감정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조형예술에서 색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다는 허리선, 경쾌하게 퍼져나가는 스커트의 주름 등은 화려하고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경우다. 여기에서 들로네는 직물 자체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이용하여 다이나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다<sup>10)</sup>.

그 후 야수파(Les Fauves)미술이 쇠퇴하고 피카소(P. Picasso)와 브라크(G. Brques)가 주도하였던 입체파(Cubism)미술이 등장하면서

3) 최현숙 (1993). 러시아 혁명기의 직물과 의상 디자인. *의류학회지* 17(1), p.92.

4) Elliot, D. (1986). *New Worlds, Russian Art & Society*. Ri220li, p.13.

5) Damas, J. (1971). *Sonia Delaunay rhythms and colours*. Thames & Hudson, p.12.

6) Steele, V. (1991). *Women of Fashion*. Rizzoli, p.74.

7) 이소영 (1991). P. 몬드리안 표현법에 의한 현대의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10.

8) Hoog, M. (1976). *Delaunay*. Flammarion, p.37.

9) Chadwick, Wc (1994). *Women Art & Society*. Thames & Hudson, p.243.

10) Damase, J. (1971). op. cit. p.13.

들로네는 이차원의 평면위에서 삼차원의 공간감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들의 창작 대상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되었고 모든 요소가 이 차원의 평면 위에서 재구성되었다<sup>11)</sup>. 이때부터 들로네의 회화에는 기하학적인 추상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1909년 이후에는 야수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색(colours)이라는 유일한 조형 요소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추상으로 향하게 된다.

로버트는 친구인 라신(B. Rossine)과 블라디미르(Vladimir)와 더불어 색채를 이용해 동시성(Simultaneity)<sup>12)</sup>을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들로네는 명암의 효과보다는 그들만의 색채관계에 기초하여 형태를 만들어 갔다. 회화에서의 빛은 진동하는 색채들을 삼각형과 원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동시성의 개념을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적인 것으로 여러 시점에서의 동등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sup>13)</sup>.

색채의 동시성 개념은 1830년대의 슈브렐(E. Chevreul)의 색채 대비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슈브렐은 색채대비의 결과는 색채가치의 동시적인 지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색과 빛이 동시에 모여지면서 유사함의 조화나 대비의 조화를 이루며 색의 다양한 변이를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동시성의 개념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적인 것으로 여러 시점에서의 동등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여 그 속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sup>14)</sup>. 들로네의 경우 이 색채대비 현상은 곧 색의 다이나미즘으로 이어진다. 즉 색채표현에 있어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려 했던 인상주의에서부터 순수한 본질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인상주의자들이 변화하는 빛의 효과를 표현하

기 위하여 태양을 관찰하여 순수한 본질의 색채를 재현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그 빛으로부터 들로네의 조형 세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1912년 러시아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광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광선주의(Rayonism)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녀의 색채와 빛을 통한 새로운 조형 세계는 오르피즘(Orphism)으로 향하게 되는데, 입체파의 피카소나 브라크가 구사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르피즘은 시각적 입체파(Orphic Cubism)라고도 하는데 1912년 베를린 데르 스트룸(Der Sturm)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진 로버트 들로네의 작품에 대해 아폴리네에르(G. Apollinaire)가 명명한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예술 운동은 들로네, Leger, Picabia, Duchamp의 작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Apollinaire가 오르피즘을 회화에서 새로운 구성요소가 시각적인 영역으로부터 차용되고 완전히 예술가 자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예술가에게 완전한 사실성을 부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sup>15)</sup>.

오르피(Orphic)은 그리스 음악의 신인 오르페우스(Orpheus)에서 따온 말로서, 음악적인 경쾌한 분위기의 한 분파로 순수회화나 추상회의 경향을 가진 예술사조를 말한다<sup>16)</sup>. 입체파가 색채보다 형태의 조합에 의한 구성을 중시했다면 오르피즘은 인상주의의 보색의 이론을 발전시켜 스펙트럼의 모든 색채를 화면에 RMfdj들여서 음악적인 리듬에 바탕을 둔 다채로운 화면구성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르피즘은 입체파의 조형성에 미래주의의다이나믹한 표현을 결합시켜 공간과 시간의 동시성을 시도하였고, 색채에 있어서는 입체파의 냉담한 색조를 피하고 야수파의 강렬함을 표현한

11) 이서희 (1993). 소니아들로네의 회화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20, p.138.

12) 이 개념은 로버트 들로네가 쉐르밸이 1936년에 발간한 색의 동시대비와 그 법칙에 따르는 대상의 조화의 법칙에서 빌어온 용어로 오르피즘 회화에 기본적 조형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임선희 (1996). 쏘랴 들로네의 회화와 의상. 한국의류학회지 10(1), p.87.

14) 장기화 (1990). 오르피즘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15) Piper, D. (1988). Dictionary of art artists. Collins, p.386.

16) Hulten, P. (1986). Futurism & futurisms. Thames & Hudson, p.426.

미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동시에 순수한 미학적인 즐거움을 주었으며 색채자체의 리드미컬한 조형성을 창조하는데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정지하고 안정된 상태보다는 다이나믹한 힘으로 구성된 세계를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시고는 점차 구체적 형태를 이탈하여 순수한 색채형태만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추상화의 한 분파를 만들었다<sup>18)</sup>. 반면에 유럽의 예술가들에게는 소위 유겐드스틸(Jugendstil)이라 불리는 아르누보(Art Nouveau)예술양식이 전형적인 국제적 스타일로 유행하고 있었다<sup>19)</sup>.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많은 예술가들은 야수파 또는 표현주의(Expressionism)에 빠져있으며, 이태리에서는 미래주의(Futurism)가 행동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을지라도 각각의 예술사조가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으며, 이 시기부터 예술가들이 자신의 미술적 이념을 바탕으로 의상을 디자인함으로써 미술활동 뿐만 아니라 패션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 III. 의상·작물디자인에 표현된 들로네의 작품세계

#### (1) 의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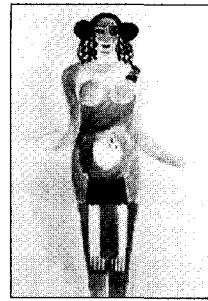
들로네의 의상디자인은 발레나 연극을 위한 무대 의상과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평상복으로 나눌 수가 있다. 때로는 실현되지 않은 의상들도 있으나 잘 알려진 주제의 오페라인 경우는 보다 더 의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많은 스케치를 했다<sup>20)</sup>.

〈그림 1·2〉

파리시 당국은 성 미첼의 분수 주변의 가스등



〈그림 - 1〉  
Costume for *Pitti Casino Ga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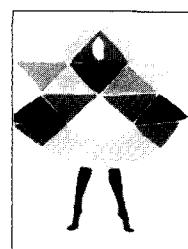
〈그림 - 2〉  
Costume design, 1920

을 전기불로 교체했다. 서서히 빛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들로네는 도시의 특정한 변화들 -특히 전깃불-이 얼마나 그들의 예술적 진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빛의 파장은 색상과 그림자를 소용돌이치고 진동하게 만들었다. 후에 들로네가 '전기의 불광' (Prismes Elestrigues)을 만들었다. 그녀는 현대적 생활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막 건너온 탱고가 바로 그러한 표현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라 하여 춤추는 커플의 자세와 주위 상황을 뒤섞은 즉석의 영상을 겹쳐진 청면으로 재생하였으며 'Simultaneous clothes'란 몸짓을 만들었다.

들로네는 그녀의 옷 역시 춤추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현재 유행하는 것처럼 같은 길이로 재단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형으로 보여지는 복합물이었다. 〈그림 3·4〉



〈그림 - 3〉  
Rio carnival design, 1928



〈그림 - 4〉  
Rio carnival design, 1928

17) 앞의 책, p.462.

18) 이영환 (1982). 「서양미술사」 박명사, p.343.

19) 정홍숙 (1989).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pp.30~35.

20) 임선희 (1986). 전계서, p.89.

들로네의 현대적 의상은 보라색 양복으로 진보라색과 초록색의 재킷 그리고 그 아래로 윗몸을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매우 연한 색상으로 된 부분으로 나뉘어 지고, 그것들은 오래된 분홍색, 텅고 블루, 연한 청색, 주홍빛 빨강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재질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두꺼운 옷감 타페타, 그물 모양의 얇은 명주, 면펠트, 모아레, 두꺼운 실크 그리고 이것들이 겹쳐진 재질로 되어있다.

들로네 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은 의상디자인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프란시스 플랭크의 작품인 '영원한 운동'을 즉석 연주한 로마 무용수 '라즈카 코드아노(Lizica codreano)'를 위해 의상을 만들었다. 그 의상은 세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서로 다른 재료와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진 옷감으로 쌓인 커다란 판자 원반이 얼굴 가까이에 입혀졌는데 거의 상체 전부를 덮고 있다. 두개의 빨간색과 하나의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반원이 짧은 스커트를 이루게 하고 점점 원반이 오른 팔 부분에 붙어 있고 원손에는 흰 원반이 붙어 있어 무용수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색채 대비를 형성하며 신비롭게 춤을 추며 그 춤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이 춤에서 색의 새로운 언어는 모든 묘사가 제거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상상력은 자류를 만든다. 들로네는 연극에서 의상은 대화처럼 제한된 움직임만을 허락했다<sup>21)</sup>.

들로네는 또한 영화의상도 디자인하였다. Rene Le Somptier가 제작한 영화 LeP'tit Parigot에서 그녀는 또다시 Pierrot Eclair역인 Codreano를 위한 무용복을 제작하였다. 이 의상은 "Women dancer"처럼 지그재그의 모티브, 흰 점퍼수트 앞면의 아플리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대의상과 패션은 Jacques Delteil의 시 "미래의 패션"을 묘사하는 데서 연장되었는데 그것은 1924년 5월 24일 프랑스에 망명한 러시아인들을 돋기 위해 Claridge 호텔에서 열린, 과

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패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무대 위의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모델로 입장해서 시를 암송하였는데 들로네의 옷에 들로네의 솔을 완전히 몸에 두른 채였고 <그림 5>의 옷은 미래의 옷들 중 하나를 묘사한 것이다. 시 암송이 진행되면서 네 명의 남자들이 마분지 상자로 재현된 빌딩 모양의 동시성 이론을 나타내는 원형 모양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등장하였다. 시 암송자는 그들 각각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새로운 옷에서 얻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 시 암송이 끝나가면서 들로네의 딱딱한 마분지 옷 "Dancer with Disc" 디자인의 해석을 보여준 옷을 입은 무용수가 나타났다<sup>22)</sup>.

남자들 주변에 무용수가 모이면서 여자와 패브릭 그리고 그들 모두는 동시성 색대비로 암송자를 제압했으며 그 시는 들로네의 사상으로 요약되어 끝이 났다.

들로네는 패브릭 조각들을 가지고 1913년 여름에 첫 번째 동시성을 타나내는 옷을 만들었으며, <그림 6> 로버트의 재단사도 역시 동시성색의 옷을 만들었다. 이러한 의복들을 통해 기하학적인 옷들은 평범한 색들을 이용하였으며 의복의 실루엣을 동시대 양식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오브제를 가지고 들로네는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1912년 의복은 폴 뽐와레의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은 커다란 디자인의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뽐와레는 또한 패션에서 밝은 색



<그림 - 5>  
Dress, Drawing in Indian ink, 1924



<그림 - 6>  
Simultaneous dress for  
The Bal Bullier, 1913

21) Morano Elizabeth (1985). Sonia Delaunay art into fashion. George Braziller Inc, p.18.

22) Morano Elizabeth (1985), op. cit. p.18.

을 소개하였고, 그러한 디자인은 색감이 풍부하고 이국적인 Bellets Russes의 옷에 의해 일반화 되었다.

의복과 색이 서로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들로네의 색과 패브릭의 조화에서 대담 무쌍함을 1914년 아폴리네르에 의해 묘사 되었다<sup>23)</sup>.

동시성의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는데 그들 중에서 Blaise cendrars는 1913년 동시성에 관한 책인 "La prose 여 Transsiberien"을 포함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들로네는 스텐실 기법을 창조하였다.

디자이너는 현재를 깨닫고 확고히 미래를 공표해야 한다. 소니아 들로네는 순수미술에서 추상성의 시각적 선언과 패션과 디자인의 구체적 기술 사이의 가까운 유사성을 이해하였다. 그녀의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는 옷으로 전환하는데 익숙할 수 있었다. <그림 7·8>

그러므로 여성들은 개성 있는 옷차림으로 새로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녀의 혁명은 그러므로 예술을 지배하였다. 패션과 일상의 삶은 하나의 대담한 공동체가 되었고 의복은 마침내 힘을 얻어 회화에서의 자기 확신이 되었다.

물론 여성의복에 대한 새로운 어휘는 1920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목표였다. 한 단어로 가장



<그림 - 7>  
Model in suit designed  
by SD,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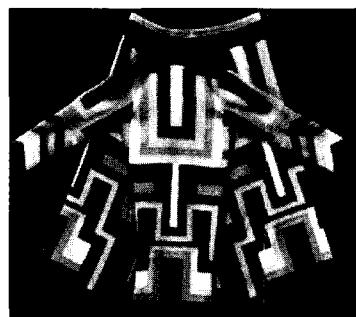


<그림- 8>  
Evening gown, printed  
silk, c. 1935

잘 묘사할 수 있는 혁명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코르셋과 고래수염 칼라, 동양적 문양과 폴 뿐 와레의 이국적 꽃무늬, 에드워드시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의 과장된 S곡선이 사라졌다. 그 대신에 우리세대 패션에서의 천재, 샤넬은 캐주얼 가디건과 자켓, 스웨터, 스커트 등에서 단순함과 실용성을 제공하였다. 그녀는 드레스의 철회를 가져왔고 무릎의 공그른 단을 잘라내고 소매도 없앴다. 총괄하여 그녀는 현대 여성의 우아한 실루엣을 발명하였다. 소니아 들로네는 쿠티르에 하우스에서 만든 재단의 혁신을 인정했지만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로 자극된 디자인으로 각색하였다. 그녀의 패션은 니트 평면과 의복이 된 색채를 하나로 모았다<sup>24)</sup>.

들로네의 의상과 텍스타일은 단순히 신체를 가리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 육체의 이미지를 위동적인 형태로 변형시켰으며, 추상적이고 다양한 색체와 기하학적 패턴으로 만들어진 의상들은 Gropius, Mies van der Rohe, Breuer 같은 건축가의 부인들이나, Gloria Swanson 같은 여배우들이 선호하였다. <그림 9>



<그림- 9>  
Coat for Gloria Swanson, 1923

## (2) 직물디자인

20세기 초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이 크게 확산되면서, 예술과 산업의 중요성이 부

23) Morano Elizabeth (1985), op. cit. p.14.

24) Morano Elizabeth (1985), op. cit. p.8.

각되었다. 1923년경 리옹의 한회사로부터 들로네의 직물디자인도 대량 생산되는데 이는 프랑스 직물산업과 현대 아방가르드 예술을 혼합한 것으로, 직물산업의 육성은 전쟁으로 야기된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들로네는 회화보다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예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상, 가구, 벽지, 스탠드, 그리고 심지어는 책표지 까지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0> 이 '동시적 책'에서 사용한 다양한 색채로 된 글자는 혁신적이었고 리듬 있는 색채 대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합예술을 향한 영감은 민속예술과 수공예의 현대적인 부화에 기여하였다<sup>25)</sup>.



<그림 - 10>  
Prose of the Transsiblerian and little Jehabbe of France by Blasise Cendrars, 1913

들로네는 완벽한 추상 작품에 심취해 있었지만 1911년 그녀의 아들의 생일에 만들어준 러시아 시골 여자들이 만들던 것과 같은 패치워크 컬트 담요의 디자인과 같이 장식 예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민속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패치워크 작품으로 패션과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26)</sup>. 이와 같이 들로네의 직물과 자수를 포함한 작품들은 그녀의 외부 구조를 강조하는 형태를 해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들로네는 직물 디자인을 통해 색채의 자유로운 사용법을 터득하였으며 후에 그녀의 회화에서 "색채가 눈이 부시게 한다."는 지적을 반기도 하였다<sup>27)</sup>.

들로네의 직물 디자인 "패치워크 컬트(Patch quilt)"<그림 11>은 실크 조각들을 연결하여 만들 것으로 큐비즘에서는 약간 벗어난 순수 콜라쥬 기법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이 직물 디자인은 그녀가 선택한 직물과 샘플들을 다양한 색상으로 만든 것인데, 이 디자인으로 들로네는 처음으로 "동시성 드레스(Simultaneous dress)"를 만들었다<sup>28)</sup>.



<그림 - 11>  
Patchwork quilt, 1911

디자인 즉, 구성적인 패턴으로 양귀비나 수레 국화 또는 장미 같은 식물장식으로 화려하며 디자인 된 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는 강하고 대담한 색과 더 부드러운 색의 배합으로 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줄무늬등 기하학적 모양의 패브릭 구성을 배열을 만들었다. <그림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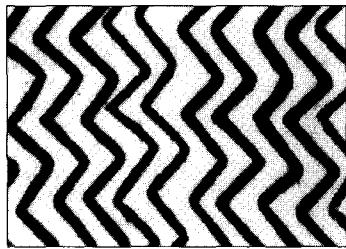
그녀는 디자인에서 종종 4가지 색을 사용하였는데 때때로 5이나 6처럼 많은 때도 있다. 그녀는 이러한 텍스타일을 연구하였고 색상조사로서 그녀의 작품은 표면적으로 동시성이 불리기도

25) Thiel, EC.

26) Steele, V. (1991). op. cit. p.74.

27) Chadwick, W. (1994). op. cit. p.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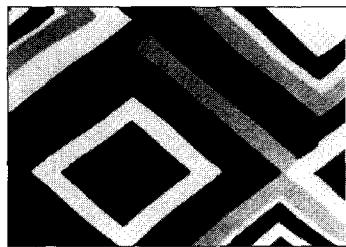
28) Damase (1991). Sonia Delaunay fashion and fabric, Thames & Hudson, pp.8~9.



〈그림 - 12〉  
Printed silk in Zigzag Pattern



〈그림 - 14〉  
SD surrounded by some her fabric designs, 1965



〈그림 - 13〉  
The material from which it  
was made, 1926

하였다<sup>29)</sup>.

들로네는 Lyons사와 1924년 그녀가 오픈한 그녀 자신의 텍스타일 인쇄 워크샵에서 인쇄과정에서 더 섬세한 조절을 원했으며 인쇄과정의 조절로 그녀는 원상태의 디자인을 위한 본질적인 색상의 정확한 변화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 취향의 고려에서도 색상의 교대 배치를 할 수 있었다.

패브릭이 옷을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에 따라 들로네는 그녀의 텍스타일이 완전한 색의 배치의 옷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프린트물 위에 자신의 옷을 디자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림 14〉

1920년대 중반의 옷 스타일은 들로네의 패브릭에 거의 적합하였다 구조적인 세부사항이나 완전한 이음새가 거의 없었고, 허리라인과 일직선의 목선도 아니었다. 그 결과, 가슴과 힙이 평평한 사람들에 의해 지지된 두 폭의 드레스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들로네의 표면 장식처럼 그 드레스는 잘 정돈됨과 길이로서 시각적인 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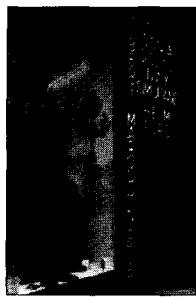
서 또한 움직임의 자유가 허락됨에 따라 실용적인 면에서 둘 다 현대감각을 표현했다. 들로네는 올바른 쓰임이 확실해진 때까지 패브릭과 의상 디자인의 넓은 확산을 위해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즉, 패브릭 패턴이라 불리는 옷을 위한 재단선과 텍스타일 디자인은 동시에 옷감위세프린트를 하는 것이다.

들로네는 'point 여 jour'라 불리는 자수법을 고안하였는데 아마도 d' Hongrie와 같은 점은 움직일 때 표면의 효과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때때로 흐릿한 금속으로 모와 견의 조화에서 자수는 패브릭과 혼합된 모피들에 더해진다. 다양한 모피류와 패브릭, 자수로 이루어진 그림33의 직선적 모티브의 장식 외투는 특별히 인기가 있었다. 들로네는 또한 신발, 핸드백을 포함하여 많은 액세서리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양말, 스웨터 등의 스포츠 의류, 손뜨개 목욕가운〈그림 15〉도 만들었다. 그녀는 동시성 대비 패브릭으로 접힌 스크린 판넬에 그녀의 코트와 옷, 그리고 액세서리를 전시(진열)하였다.〈그림 16〉1925년 쿠뛰르에와 모피상 Jaacques Heim과 공동으로 발표한 그녀의 'Boutique Simulate'에서의 예술작품의 전시 후에 큰 성과가 있었다. Heim은 재미있는 기하학 배열과 색, 여러 가지가 섞인 패브릭의 사용과 같은 들로네의 기호를 함께하였고 그러한 요소는 페르시안 양모와 검정색 모의 삼각코트를 위한 그의 디자

29) Morano Elizabeth (1985). op. cit. p.20.



〈그림-15〉  
Dressing gown made of a  
fabric designed by SD, 1926



〈그림-16〉  
Facade of the 'Boutique  
simultanee' at the 1925 Art  
Deco exposition in Paris

인에 명백히 드러난다<sup>30)</sup>.

#### IV. 결 론

##### (1) 장식성

회화를 의상에 최초로 도입한 들로네의 직물과 의상 디자인의 조형성은 기하학적인 추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문양은 색채의 동시대비(Simutaneous Contrast)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들로네의 동시성의 개념은 명암의 효과보다는 순수한 색채들을 통해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색채 개념은 슈브렐의 색채기법에 영향을 받았다. 즉 색채 표현에 있어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상주의자들이 변화하는 빛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태양을 관찰하여 순수한 본질의 색채를 재현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그 빛으로부터 들로네의 조형 세계가 구축되었다. 초기에는 야수주의의 영향으로 원색을 주로 사용하고 입체주의적 오르피즘에 근거하여 추상적인 형태의 다이나미즘을 보여주었다. 색채뿐만 아니라 콜라쥬 기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동시성을 보여준 것이 들로네 의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직물 디자인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기하학적이고도 강

렬한 색채에서 입체적인 경향이 돋보이는 추상적인 패턴을 디자인하였으나 후기에는 무대의상을 디자인하면서 순수한 형태의 꽃 문양이나 이것을 응용한 디자인을 추구해 나아감으로써 점차 오리엔탈리즘적인 경향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들로네는 20세기 추상예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모던한 의상의 창조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가 20세기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양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기하학적인 추상세계로 나아간 것은 높이 평가되어진다. 그녀의 스카프, 무대의상, 그리고 모던한 감각의 현대 의상들은 각각 성공을 거두어 전세계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그녀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라인은 1920년대 여성의 패션에 새로운 발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의상에서의 아방가르드 한 주제가 주목되어 그녀의 추상적 패턴이 색채라는 요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들로네는 회화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예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상, 가구, 벽지, 스탠드 그리고 심지어 책표지까지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종합예술을 향한 영감은 민속예술과 수공예의 현대적인 부활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들로네는 일상화된 생활을 초월한 자아를 창조하려는 욕구를 직물과 의상에 표현하려 하였다.

현대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 카스텔 바락, 그리고 완카드라 랜다는 들로네를 복사하지 않았다. 서서히 그들은 들로네의 발견을 재생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매우 현대적인 것들이다. 마크 보헴(디오르사)은 들로네가 20년대의 프랑코스 하디를 기염하기 위해 제작된 이브닝 가운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디자이너 페리 엘리스는 그의 1984년 가을 컬렉션이 소니아 들로네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발표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91년 컬렉션이 소니아 들로네의 작품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1996년 초의

30) Morano Elizabeth (1985), op. cit. p.21.

겨울의상 발표 때 지아니 베르사체는 다시 한번 소니아 들로네의 이름을 상기시켰다.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웃도 1918년에 들로네가 창안한 류세프 베르디의 아이다를 위한 의상의 회상이었다. 이렇듯 그녀가 살았던 시대보다 젊은 생각을 가진 나이든 여성의 아이디어들은 다가오는 시대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필 (1998).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 이서희 (1993). 소니아 들로네의 회화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20.
- 이소영 (1991). P. 몬드리안 표현법에 의한 현대의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1982). 서양미술사. 박명사.
- 임선희 (1986). 쏘냐 들로우네의 회화와 의상. *한국의류학회지* 10(1).
- 장기화 (1990). 오르파즘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문호 (1982). 서양미술사. 형설출판사.
- 정삼호 (1996).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 정혜정 (2000). 들로네의 직물디자인에 나타난 리듬과 색채에 관한 연구. *복식* 50(6).
- 정홍숙 (1989).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 최유경 (1992). 20세기 미술의 전위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숙 (1993). 러시아 혁명기의 직물과 의상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17(1).
- Arvon, Henry 오병남 역 (1990). *Marxist Aesthetics*. 서광사.
- Chadwick, Whitney (1994). *Women, art and society*. London:Thames & Hudson.
- Damase, Jacques (1971). *Sonia Delaunay rhythms and colours*. London:Thames & Hudson
- (1991) *Sonia Delaunay fashion and fabric*, London:Thames & Hudson.
- Elliot, David (1986). *New Worlds. Russian Art & Society*. New York:Rizzoli.
- Herald, Jacqueline (1991). *Fashions of a decade the 1920s*. UK:Batsford.
- Hoog, Michel (1976). *Delaunay*. Flammarion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이화연 외 2역)(1988)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출판사.
- Hulten, Pontus (1986). *Furturism & futurisms*. London:Thames & Hudson.
- Lambert, Rosemary 이석우역 (1986).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1997). *Decades of beauty*, Melbourne: Hamlyn.
- Osborne, Herold (1981) *The Oxford Companion of the 20th Century Art*. Oxford University Press.
- Piper, David (1988). *Dictionary of art and artists*. London:Collins.
- Steele, Valerie (1991). *Women of fashion*. New York:Rizzoli.
- Stoliz, Jerome 오병남 역 (1991).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 실천*.
- Thiel, Erika 양숙희 편역 (1997). *복식과 예술. 교학연구사*.
- Wilson, Elizabeth (1986). *Adorned in dreams*. London:Virgo.
- Wilson, Elizabeth & Taylor, Lou (1989). *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BBC.
- Morano Elizabeth (1985). *Sonia Delaunay art into fashion*:George Braziler Inc.